

---

# 2016년 세계 대학생 식육평가대회(ICMJ)를 마치고

건국대학교 추유지

---



발골정형 강의 직후 질문을 던지는 우리들



소도체실기평가가 열린 Teys 육가공장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개최한 제6회 전국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 호주 ICMJ 대회 프로그램 참가자격을 획득해 10일간 호주대장장을 떠났다. 본 대회는 세계 대학생 식육평가대회로 전 세계의 축산 관련 대학생들이 모여 지식을 겨루고,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는 행사다. 이번 대회 참가자는 코치를 제외하고 총 120여 명으로, 호주의 12개 축산 관련 대학의 대표들과 4개의 국제팀(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이 각각 4~10명 규모로 출전했다. 한국팀은 축평원과 호주축산공사에서 참가경비를 지원해주셨다.

드디어 2016년 7월 4일! 호주로 떠나는 9명의 멤버가 인천국제공항에 모였다. 10시간의 비행으로 시드니에 도착한 후, 다시 1시간 동안 국내선으로 이동해 대회장소인 '와가와가'라는 내륙도시에 도착했다.

2016 ICMJ 프로그램은 4일간 식육산업 전반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마지막 이틀 동안 식육평가대회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한국 대회와는 운영방식과 기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로 오전에는 식육과학, 소 및 양 산업현황 등의 강의를 들었다. 강사의 호주식 영어발음이 적응되지 않아 교육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시각화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해를 높여갈 수 있었다.

오후 시간은 주로 직접 도체를 볼 수 있는 실기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대회 이전에 우리 한국팀은 평가대상인 소·돼지·양 도체와 대분할, 소분할 부위의 실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기교육시간은 호주방식의 실기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중요한 시간이었다. 한국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던 방식의 분할·정형교육이기에 생소했지만 직접 실물을 보면서 공부하니 이해도 빨리 되고 기억에 오래 남았다.

저녁식사는 별도의 컨벤션 센터에서 축산기업설명회와 병행해서 이루어졌다. 매일 다른 좌석빈도가 부여되는 방식은 학생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이틀,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었다. 첫날은 Small stocks test로 양 도체평가, 돼지 도체평가, 돼지 대분할 평가, 리테일 컷 평가 총 4개의 평가가 진행됐다.

양과 돼지 도체 평가는 각각 4개의 도체를 나란히 두고 여러 항목들을 비교하여 높은 가치를 가지는 도체의 순서를 매기는 것이다. 한 가지 항목으로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을 보고 비교해 가치를 정해야 하는 심도 있는 평가방법이었다. 호주학생들이 3개월간 각 대학별로 실기평가 실전에 비무가는 훈련을 거쳐서 참가한 것과는 다르게 한국팀은 현지 방식의 교육기회가 극히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했다.



소분할 부위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리테일컷 평가는 우리가 주력한 대회 송복으로 소, 양, 돼지의 소분할 부위를 임의로 테이블에 배치하고 해당 부위의 축종과 부위명, 요리 방법을 맞추는 평가였다. 숙소 벽면에 부분육 사진을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서로 퀴즈를 내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한 덕에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Teys 소도축가공장에서 소부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소도체늘을 서로 비교하여 가치를 매기는 평가와, 서술형 평가, 내분할 평가, 대분할 부위명 시험 등 한꺼번에 다양한 시험이 진행됐다. 가농 송인 예냉실에서 시험이 진행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는 한글이 선명하게 새겨진 평가사용 안전모와 위생가운을 입고 국제대회에 임한 우리였다. 이때는 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축병원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더욱 힘을 내야겠다는 마음이 늘었다. 한국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대회를 위해 서울지원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도 느꼈지만, 안전모와 가운을 입을 때마다 앞으로 평가사가 되고 싶은 나의 꿈이 조금씩 이뤄지는 것 같아 가슴이 찢릿했다.

이렇게 모든 대회일정을 마치고 시상식에서 ICMJ 공식 교육프로그램 수료증을 받았을 땐 '드디어 끝났구나.'라는 홀가분한 느낌과 함께 수상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모두 몰밭 붓쳐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보람 있는 내회를 지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교육이 진행된 CSU 강의실 앞에서

대회를 마치고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축산공사(Meat & Livestock Australia, 이하 MLA) 본사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MLA는 호주의 축산물 생산자(농장주)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능급제도의 운영, 프로모션과 연구, 리서치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MLA 운영방식과 호주 축산현황에 대한 PT와 질의응답이 이어진 후 소매점 리테일 투어를 하면서 호주축산물의 소매유통단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열흘간의 호주 일정이 빠르게 지나갔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축산을 전공한 우리들에게 이번 해외경험은 산업을 바라보는 사교의 폭을 넓히고, 배울 수 있는 정말 값진 시간이 됐다. 이런 기회를 주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백종호 원장님과 MLA의 고희상 한국지사장님, 이우열 대리님, 서울지원의 이원복 지원장님, 박승필 교관님, 그리고 이번 출장의 모든 준비 및 상황관리를 해주신 한국팀의 코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



수료증 수여식을 마치고